

부흥 1

과연 부흥은 확산하며 기도할 만한 것인가 부흥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성두(대학부 6학년)

우리가 아무리 부흥을 위해서 많이 기도한다 해도 그것이 성령이 말하고 있는 부흥이 아니라 교회의 확장, 풍요로운 재정, 아름다운 성전 등을 의미한다면 분명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부흥이 아니다. 부흥은 죽은 것이 다시 사는 것, 전혀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것도 이 죄조세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죽은 것이 다시 사는 하늘의 전권적인 역사. 이것이 진정한 부흥에 관해 말할 수 있는 시작점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흥사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장 핵심의 사건이고, 부흥의 절정이다. 이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 죽 죽이 있던 이 땅의 생명이 다시 사는 길이 열렸다. 그럼 영생이 이 십자가를 가장 먼저 성경에서 선포하고 있는 곳으로 가 보자.

창세기 3장 15절이다. 화목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처절하게 끊어버린 사단에게 '내가 반드시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단호한 선포로 타락한 땅에서의 구원 역사는 시작되었고, 그리고 마침내 골고다의 십자가를 끝으로 이 역사는 일단락 지어졌다.

부흥의 원리는 언제나 동일하다. 이 땅이 어두워지면서 교회가 가져야 할 빛으로의 사명을 더 이상 지니지 못하며, 그리스도인들조차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기 어려워질수록 소수의 각

성한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히, 그리고 마음의 옷을 찢으며 부흥을 불렀다. 또한 이들은 이 부흥을 위해서 우리쪽에 서 치워야 할 대가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다. 이 대가는 산재물이라야 한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따라서 이 부흥이 오기 전에는 반드시 누군가가 이 산재물로 죽어야 하는 것이다. 그것도 그분의 백성중에서. 무서운 말이 아닐 수 없다. 이리니 어떻게 할부로 이 땅의 부흥을 의칠 수 있으며, 어떻게 천박한 교회 성장에 이 부흥을 감히 말할 수 있겠는가? 먼저 자신들의 백성을 정결하게 하시는 작업 없이 어떻게 세상만이 악하다고 다 끌어버리고, 자신의 백성에게는 아무런 책임을 묻으시지 않겠는가? 동일한 여두음에 잠겨 있는 자신의 백성들도 이것이 여두음임을 깨닫지 못할진대, 이 백성들을 먼저 깨끗하게 하는 일없이 부흥이 일어 나겠느냐는 말이다. 그럴 수 없다. 이 부흥은 이렇듯 대가가 필요한 것이다.

구약의 신약 부흥과 개혁으로 암울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보석같이 빛나는 일들을 감당한 인물들을 살펴봐도 이러한 하나님의 대가를 기꺼이 치르는 강한 결단과 의지가 있었음을 놓칠 수 없다. 내 안에, 우리 안에 있는 깊은 상처들을 먼저 도려내는 아픔 없이는 이 시대적인 부흥을 구대할 수 없다. 이 부흥

을 위해서 기도하는 소수의 인물들이 있는 것은 우선 그들이 부흥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이것이 나와 우리를 살리는 진정한 구원의 문제임을 인식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부흥이 가져올 결과를 알기 때문이며, 이 부흥을 위해서 산재물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사람들을 찾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 소수의 사람들조차 이 부흥을 위해서 충분히 기도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이 부흥을 직접 경험하지 못해 보고, 따라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절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

리 속에 있는 죄성이 이것을 힘들게 한다. 또한 이것을 교묘하게 이용하려는 악한 사단의 세력도 우리를 이 일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부흥이야말로 사단을 멸시하겠다는 하나님의 가장 노골적인 선포이기 때문이며, 이를 사단도 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부흥을 확신하며 기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가를 치르는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부흥은 절대적으로 확신하며 기도할 만하다.



부흥 2

부흥에 대한 생각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회개, 기도, 그리고 개인과 공동체의 갱신

손호준(대학부 5학년)

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 보고자 합니다. 리바이벌 대회, 후속 홍보 기도회, 부흥을 위한 홍보기도회 등 참여하면서, 또 바라보다도 생각 듭니다. 속기 쉽고, 놓치기 쉬운 것들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냥 생 생각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우선, 왜 부흥이 필요한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지적대로 우리는 피상적인 문제나 상황이 아니라 근본적인 생명 자체를 인식해야 합니다. 근본적인 생명 자체의 문제.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우리가, 그리고 이 땅이 너무 멀찍이 떨어져 있는 것을 문제 삼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부흥이 필요한 상황은 바로 본질에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땅을 바라보는 바로메리는 다음이 아닌 '십자가'이고, 또 그것이 유일한 것이어야 합니다.

둘째는 부흥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도권에 관한 부분입니다. 전적으로 부흥은 하나님께서 속한 것입니다. 전적으로 우리의 그 어떠한 몫부림이나 동기가 '원인과 이유'가 되어서 '부흥'이라는 '결과물'을 산출할 수 없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선언해야 합니다. 도저히 도저히 우리에겐 희망이 없고 방법이 없고, 그래서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겸손히 구하는 것. 그렇게 하면 우리의 기도는 더욱 낮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번째는 회개입니다. '부흥은 곧 회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회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받으시는 회개. 죄의 사슬을 끊어내는 능력 있는 회개. 제대로 된 회개란 무엇일까? 요즘 세상에 많이 회개와 관련하여 자주 떠올리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한 몸으로 하는 회개'입니다. 자책한 '나'는 제대로 하나님 뜻에 따라 살고 있고, 그분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가려고 애쓰는데, '이 땅이 악해서', '이 땅의 문화가 적어서', '저 기성세대가 범했기 때문에', '저 교회가 타락해서', '저 목사가 제대로 깨어 있지 않아서' 등등, 그래서 '기독교'나 '내'가 제대로 살 수 없고 너무나 힘들다. 그래서 이 상황을 뒤집어 얻을 만한 뭔가가 있어야겠는데 그것이 바로 부흥이다. 주여 우리에게 부흥을 주소서.' 이런 정황 아니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이런 무너진 곳

을 분별하여 막아서는 기도가 아니라 마리아선의 외식적이고도 가증스러운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이렇게 기도했는지요.

또한 부흥을 위해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부흥을 주소서'라는 간절함이 '우리에게 조만간 부흥을 주실 것이다'는 자기 확신과는 다르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는 자기 척도도 아니고, 자기 앞치마도 아닙니다. 기도에 있어서도 주주권이 하나님께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의 믿음으로, 확신으로 자리잡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부흥의 열매와 결과들에 관해서 더 언급해야겠습니다. 부흥은 최심한 사람들을 낳고 하나님과 그분의 거룩에 대한 열정이 뜨거워지게 하며, 부흥의 거룩한 영향력이 세상까지 미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부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분 앞에서의 우리 인생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어떠한 신비주의나 성장주의도 배격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부흥이 오면 우리가 그토록

오랫동안 참혹했던 것들이 일순간에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소망의 이유여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추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보통 쓰이는 부흥의 개념은 곧 시대적 부흥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가법계 다루어지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바로 '개인적인 부흥'입니다. 부흥을 위한 집단적이고도 공동체적인 소망은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앞에서 홀로 서는 '나' 역시 중요합니다. 내가 바로 그 부흥의 물결 아래에 잠겨져야 하고, 내가 바로 회개의 강물 속에 들어가 죄사함을 받아야 하고, 내가 바로 성령의 전폭적인 인도하심 아래에 거해야 합니다. 저는 '한 개인을 향한 부흥'이 결코 공동체적인 부흥을 지향하거나 그 소망을 더 약화시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달에 만난 성도

소석장학금 기탁하신 우리 모두의 어머니 김복을 집사

“토요일을 쉼여야 주일 아침 교회에 올 수 있지만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성도 중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것이 가장 즐겁지요”

김복을 집사님(82세: 이후로는 '할머니')은 혼자 사신다. 집집마다 한 집을 부수고 새 집을 맡금하게 올리고 있는 효창운동장 뒷동네에서 김복을 할머니는 몸이 낡고 허름한 집에 그대로 사신다. 방 세칸 중 두 칸에서 나오는 월세가 할머니의 생활비 전부다. 그녀가 마당을 가운데 두고 'ㄷ'자로 놓여진 구조인대 화장실도 출입문 쪽에 붙어 있는 것이 전부이고, 구들장은 조금씩 가라앉고 어둡고 오래된 집이어서 세입자가 잘 들어오지를 않는다. 지금도 방 한 칸은 비어 있다.

김 할머니의 주방기구는 아주 오래 전부터 사용해보는 콘로 하나가 전부이다. 낡고 때가 낀 콘로로 밥도 해드시고 국수도 삶아 드신다. 그러나 할머니가 교회에 오시기 전날인 토요일에는 콘로도 켜지 않는다. 사연은 이렇다. 할머니의 가장 큰 기쁨은 교회까지 무사히 도착하여 여러 성도들에 둘러싸여 예배드리는 축복된 시간이다. 하지만, 이전에 강 수술을 받으신 이후로는 장이 짧아져 무릎을 드시고는 멀리 외출할 수가 없으신 형편이다. 따라서 교회에 오시려면 토요일부터 굶으셔야 한다. 토요일 새벽을 꼬박 굶고 주일 아침에 일어나 버스를 두 번 갈아타야만 교회에 오실 수가 있다. 따라서 주일예배를 드린 후 집에 도착하시면 거의 탈진이 되신다. 그래도 할머니는 가능한 토요일마다 콘로를 켜고 싶어 하신다.

이 김복을 할머니가 선포 19원전을 소석장학금으로 기탁하셨다. 친분이 주님 품에 안기는 날 집을 팔아 현금으로 서약서를 쓰신 것이다. 거의 일평생을 홀로 힘들게 인생의 여정을 걸어오



신 할머니는 왠지 어려운 사람을 보면 마음이 크게 움직였었다. 그래서 단 돈 몇 만원으로 힘들게 살림을 꾸려가시는



중에도 학비가 없어 고생하는 학생을 보면 모았던 찜짓돈으로 백여만원씩이나 되는 돈을 섣달 내어주시곤 했다. 귀한 할머니와 잠시 이야기를 나누는 다.

- 언제부터 충현교회 가족이 되셨나요?

김 할머니: 안그래도 내 조카들이 아주 오래 전 일이에요. 몇 년도 인가는 잘 기억할 수 없지만, 충무로 시절에 제가 김친중 장로님 덕에서 집안 살림을 봐드리면서 생활했었는데,

충현교회 식구들이 심방을 오곤 하시어서, 그때부터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지요. 어릴 때는 부자집에서 태어난 잘 지냈지만, 열일곱에 시집가서 어려운 일을 겪고 난 후로는 계속 혼자서 힘들게 살아 왔어요.

- 지금까지 지내오신 일들에 대해서 할머니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으신가요?

김 할머니: 사실 제가 살아온 것 자체가 하나님 은혜의 간증이지요. 먹는 것부터 모든 것을 일일이 챙겨 주셨어요. 저는 하나님을 늘 옆에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저 자손들에게 피로를 끼치지 않고 자는 듯이 하나님께 가게 해주세요' 하는 거지요. 그리고 교인들이 저를 참 많이 도와 주셨어요.

- 어떻게 장학금을 기탁하게 되셨나요?

김 할머니: 그동안 조금씩 모았다가 장학헌금도 하고 장학헌금도 냈었는데, 매달 낼 수 있는 형편은 못되고 해서 한 묶에 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던 중에

결심하게 되었지요.

- 아파트 같은 곳으로 이사하고 싶으신 적은 없으셨어요?

김 할머니: 안그래도 내 조카들이 아파트로 옮기라고 여러 번 말했지만, 저는 이곳이 제일 좋아요. 이렇게 방에 앉아서 대문을 바라보면서 누군가 오는 사람이 있나 기다리는 것이 좋아요. 오는 사람은 별로 없지만 그래도 구역식구들이 자주 오시는 편이에요.

아침을 속에서 할머니와의 이야기를 마쳤다. 할머니는 예배드리는 중 내 기쁨과 감사의 눈물을 흘리셨다. 그리고 정성껏 준비해 놓으신 다과를 내어놓으셨다. 함께 간 이들 모두는 감격한 마음으로 열심히 먹었다. 할머니가 입을 여셨다. "내 평생에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날이 또 있을까요? 천국이 꼭 이만큼만 되어도 좋겠어요. 이보다 더 좋겠지만도."

수십년 된 듯한 할머니의 낡은 장롱에는 당신이 돌아가신 후 '이렇게 해달라'고 누군가에게 부탁하는 편지와 장학금 기탁 서약서가 나란히 걸려 있었다.



부모님께 드리는 편지

사랑하는 나의 어머니

공민화 집사(6교구)

생전에 사랑과 정성으로 자식을 위해 희생하신 나의 어머니. 이제는 어머니라 부를 수도 없는 저 하느님 나라에 계신 나의 어머니. 어머님이 계셨기에 지금의 내가 있으며 내가 있기에 어머니께서 주신 그 사랑과 정성을 다시 또 내 자식에게 부수려나. 어머니의 빈 자리가 너무도 크기에 오늘날도 그 자리를 찬송과 기도로 메꾸어 가면서 이제 어머니의 발자취를 조심스럽게 한 발자국씩 따라가렵니다. 불려도 대답이 없으시며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사랑하는 나의 어머니. 먼 훗날 아름다운 저 하느님 나라에서 만나 될 것을 고대하면서 오늘날도 어머니가 계신 동산을 바라보며 그리운 나의 어머니를 그리웁니다.

(어버이 날을 맞이하여 얼마전 돌아가신 어머님께 드리는 편지)

자식 사랑 하나로 여까지

박해정 집사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 아직도 부를 그리운 이름 있어 언제나 달려가 부르면 두 팔 벌려 맞아 주시는 두 분. 우리 아버지 어머니 계시오니 저희 사남매 이렇듯 행복합니다. 나라 잃은 설움과 포탄 속에 찢겨온 아픔 천지가 요동치는 격란의 시대 헤치며 자식 사랑 하나로 아낌없이 자신을 내던지셨던 두 분. 저희 아픔과 연약을 짊어지셨던 우리 어머니 아버지. 평범한 삶이 얼마나 큰 살인죄 해가 갈수록 더해지는 사랑의 무게 다만 고개 숙여드립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 삶의 고비고비 넘어 두 분 다정하 손잡고 서시니

몸은 곤하고 황혼의 그림자 길게 드리운다 할지라도 아버지 어머니 오늘 주님이 베푸신 축복에 자리하셔서 저희의 변함없는 사랑과 존경을 삶의 삼금처럼 누리시고 자니손은 모두에 돌려 복을 빌어 주시며 언제나 길이 행복하소서.

(16교구 고남권 권사의 생전에서 장녀 박해정 집사가 부모님께 드린 편지)



지체들 소식 / 어버이주일

지체들 소식

▶ 영아부

어린이주일을 맞이하여 일곱 분의 목
사님께서 오셔서 아가들의 머리에 일일
이 손을 얹으시고 축복기도 해주셨다
(가신). 엄마, 아빠들은 기도 제목을 내
놓기도 하였다. 또한 5월 한 달 동안은
특별찬송 시간을 마련하였다. 영아부에
소속되어 있는 누구나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기를 원하는 가족이면 되기에 이번
주일에는 김영 아가(김필수 목사님)
가정과 김하림 아가(김을필, 이미나 선
생님) 가정에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
다. (송혜정 통신원)



▶ 유아부

오늘(10일)을 아버지주일로 삼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부모님께 순종하는 아름다운 사명을 키우려는 뜻에서입니다. 가사 손으로 만든 카네이션에 작은 선물들 곁들여 드리면서 "엄마, 아빠! 고맙습니다!" 인사할 수 있는 어린이로 키우시지 않으시렵니까? 유아부는 언제나 4, 5세 어린이들에게 문을 활짝 열어 놓고 있습니다. (임피수 봉사회)

▶ 유치부

2000년 전 어린이들을 안고 축복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며, 어린이 주일에는 목사님들께서 어린이들에게 한 사람씩 '축복기도' 선물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어린이들의 미래와 재능과 포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

며, 세상을 부끄럽게 할 수 있는 자랑스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장하길 함께 축복합니다. 오늘(10일)은 유치부 어린이들이 부모님께 감사하며 부모님들께 드릴 선물을 2부 시간에 함께 준비합니다. (조인혜 통신원)

▶ 유년부

저번 주부터 시작한 유년부 선생님을
에 대한 소개를 보셨어요? 이번 주는 2
과 선생님을 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일곱 반을 항상 묵묵하고 단합
된 분위기로 어떤 학생 지도에 노력하
시는 변경심 과장님이 계시죠. 그리고
조소한 성품과 기도, 사랑, 이 세 가지로
학생들을 지도하시는 최종남 선생님(8
반), 놀이와 친교로 명랑하게 학생 지도
에 노력하시는 오은혜 선생님(9반)이
계세요. 또 여러 선생님의 모범이 되시
는 이성호 선생님(10반)은 열정적인 세
방과 적극적인 성경 공부에 힘쓰시면서
학생들을 지도하고요, 끊임없는 기도
와 성화로 낙오하지없이 지도에 힘쓰시
는 유요종 선생님(11반), 예수님을 아는
즐거움을 항상 배우고 명랑하고 쾌활하
게 이끄시는 박우주 선생님(12반)과 세
중심 및 시청각 교재를 통한 학생의 성
경 공부에 주력하시는 이은혜 선생님(13
반)도 계시요. 마지막으로 침착하며 세
심한 성품과 진정한 사랑으로 어린 학
생들을 지도하시는 김도희 선생님(14반)
이 계십니다. 2과 선생님들의 20대의
자신감과 40대의 노년미를 잘 조화시켜
우리 예수님을 효과적으로 가르치시는
모습은 우리 유년부의 자랑이지요. (장
지훈 통신원)

▶ 중등2부

어느 새, 아카시아꽃 내음이 향기로
운 가정의 달 오월이 되었습니다. 가정
만들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곳은

없었으니 그런 감정이 잘못되기 시작하
면 우리에게 많은 아픔과 상처를 주게
됩니다. 특히 한창 사춘기에 있는 학
생들은 그 아픔과 상처도 이해 할 수
없는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
희 중등2부에서는 잃은 양친을 더욱 연
속해서 접하고 있는 친구들 중에서도
이런 친구들 있는 것은 아닌지 교사들
이 줄을 짜서 찾아 보기도 하는 한편
은 양과 대안자를 위해 전 교사가 릴레이
금급기회를 시작하였습니다. 6월 14
일 작은 음악회까지 이어질 금급도의
두번째 금급기도와 역시 하나님의 원이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금급기도에 힘
써 주었던 다니엘에게 칭사를 보내어
힘을 주었던 중급개서 성형의 준비로
주식수리라 믿으며 이 동일한 세 바람
이 출현 가족 모두를 흔들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나섯에 못신)

▶ 중등3부

봄 냄새와 함께 중등3부의 분위기가 바뀌었다. 반반공부 시간 전의 찬양과 천교의 시간이 새롭게 단장되었는데, 생일 축하 및 태신자들을 위한 축복송과 축복 기도, 성령의 소리를 발표, 스펀셜 팀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별히 지난 주에는 부모님께 편지쓰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하나님 안에서 올라르다 양육해 주신 부모님의 사랑에 다시금 감사드리게 되는 귀한 시간이었다. (송미경 통신원)

▶ **고등부**

고등부 소그룹중 하나인 바울전도부(교사:한정숙)에서 지난 4월 18일(토) 정선여고 앞으로 노방전도를 나갔습니다. 총 32명의 고등부 회원(바울전도부 17명, 타부서 회원 15명)이 참여한 이번 전도는 오후 3시 30분부터 6시 20분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찬양과 율동을 통

해 자기가 체험한 하나님을 전파하였는데, 자신이 직접 만든 전도지를 준비해 1대 1 전도를 한 학생도 있었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전도된 몇 명의 학생들이 우리 교회에 나왔으며 참여자들의 신앙심이 부쩍 자라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한, 두 차례의 노방전도가 있을 예정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현정 통신원)

▶ **탁아부**

가정의 달을 맞아 탁아부에서는 오늘 (10일) 낮 12시 학부모님들을 모시고 '신앙과 여성 건강' (강사 조인제 장로)이라는 주제 아래 함께 배우고 또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부디 오셔서 만남의 자리로 빛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15교구

가정의 달 오월, 신문의 개천, 신문의
그 뜻뜻한 향기와 마음껏 앉은 순결함
처럼 향기는 세상 속에서 순결함으로
거꾸어 가장 토양이든 인생의 뿌리
를 내리는 것과 같은 공동체이다. 하나님
의 역사를 이어 나갈 세대를 키우는 중
요한 것이기에 자연히 사대를 최고
최대의 절단 또한 어원을 파괴하는 일
되는 것이다. 요즈음 어린이들과 청소년
들의 장래 희망 1위가 연예인, 스포츠
인인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매스컴이
지나가는 어린이들의 의식에 미치는 영
향은 무척적이다. 어린이들이인 3명, 고
급 모방작에 에스더(웃는 소녀), 뱀사
간해를 통해 에스더처럼 다니엘처럼 조
건적 타협이 있을 수 없는 것에 믿는 사
람다운 신앙의 절개로 믿음의 스타로
일기 자본들을 키우는 가정이 되기를
원인 자녀들이 축원하였고 교육 지구
모두 아멘으로 화답했다. (한숙정 부인)

어버이주일을 맞아

나의 어머니, 나의 영웅

박 노 철(강도사, 중등1부 지도, 출판부 부지도)

지 어머니는 6·25전쟁을 전후로 해서 폐병을 심하게 앓았으니 의사에겐 생명 연장을 소망이 없다는 사형 선고를 받았으리라 믿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그 날, 병원에 들이오는데는 집에 어릴 때 만 가본 적이 있는 교회에 가고 싶다는 강렬한 마음이 어머니에게 일어났습니다. 한자로 말리시는 이모님들을 설득하신 어머니는 일주일 동안 교회에서 기도하신뒤 예수님을 만나시는 놀라운 경험을 하셨습니다. 어머니를 만나 준 주님 예수님은 어머니의 폐병 3기를 완전히 고쳐 주시며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사명을 부여 하셨습니다. 이제 막 칠순을 맞은 어머니께서는 아직도 건강하고 믿음으로 주님의 물론 교회와 기도문을 한결같이 지키시며 헌신하시는 전도사님이십니다. 이번 어머니주일의 뜻을 감히 어머니에 대한 여러 가지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빠르게 스치고 지나갑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였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평소에 소심하여 말이 없
었던 나에게 담임 선생님께서는 어린
난 머우 스바 2통을 가져 오라고 말씀하

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3년 전 5월 초
 어머니 수백이 광강호 3하강에 왔을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3학년생이 2
 것을 들고 가는 것도 어려운 일이었다
 것을 볼 때에 분명히 선생님께서는 장
 녀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
 아. 그랬다. 나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시느라
 바쁘신 어머니의 차마를 볼줄고 수백 2
 통을 사가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오스미바 "선생님이 탄다고
 하신 말씀이니가 그렇가도 된다고 말
 씌하셨습니다. 한 두 번 정도 더 조르다
 가 워나 성적이 소싯전엔 저는 축 처진
 어깨를 하고 학교로 향했습니다.

시장 하나를 지켜야 학교가 나오기 때문에 막 시장을 꼭꼭 진입하는대
는 누군가가 제 이름을 급하게 부르며 달
려 오는 것이었습니다. 돌아 보니 앞차
를 따르던 제2호 차량 고무신은 신고
달려 오시는 어머니였습니다. 예수님
받은 여전도사의 소명을 감당하시기 위
해 하루도 빠지지 않는 철기 기도하
는 베키도를 드셨던 어머니. 믿지 않는
집안의 며느리로서 또한 아내로서 매일
계속 되는 땀과와 연단을 낚으셨어
이처럼 어머니 6년째를 낚으셨고 그

바리새교인으로부터 배반당한 어머니
나. 그날 아침에도 지치고 상실한 어머니
니게서 어깨가 축 처져서 이름을 향하
는 제가 안타나우려는지 저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라 오진 것입니다. 그리고
소매 속에 끼웠고 감추어 두신 비상
금으로 그 비싼 수막 2층을 사주셨습
니다. 그 수막 2층을 가지고 한참을 가
다 뒤를 돌아보니 어머니에게서 여전
히 그곳에서 저를 바라다 보고 계
십니다. 그리고 손을 저어시면서 빨리
가라고 하신 어머니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됩니다. 수막 2층을 들
게 들고 교실로 들어서는 저를 보면서
웃음을 감추지 못하시던 선생님의 모습
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한 세대를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한 번에 바치는 사람을 우리는 '영웅'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매일 조금씩, 끊임없이 희생하여 결국 인생 전부를 주고 마는 분을 우리는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김옥희 전도사님. 이분은 6남매인 우리들의 어머니이십니다. 70평생 자녀들의 신앙과 복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우리들의 영육이신!

다. 김옥희 전도사님. 그분은 말로 다할 수 없는 핏박과 연단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박씨 집안 전체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며 하늘의 복을 받게 하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자식들의 믿음과 복을 위해 새벽을 깨워가시며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어머니이시며 우리의 영웅이십니다.

저는 짧은 인생을 살고 있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마다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하며 위로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화답과 힘을 얻습니다. 육신의 어머니께서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데에 하늘의 아버지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길라는 생각을 하며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가정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김옥희 전도사님과 같은 신앙의 거인을 어머니로 모시고 있으니까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교 회 소 식

● 알 림

1. 제2차 학술 및 세례식 안내 / 학술 및 세례, 개종, 입교, 유아세례를 받으실 성도는 오는 아래 요일에 참석하십시오. 학술 및 세례식은 17일(다음 주일) 찬양예배시간에 있습니다(유아세례는: 17일(다음 주일) 15:00 간담회후).
- 학술, 세례, 개종, 입교(교육료 307) : 1교시(15:00) 구원론(이승수 목사) 2교시(16:00) 문답(조규범 목사)
- 유아세례(교육관 310호) : 1교시(15:00-15:50) 유아세례란(조규범 목사)
2. 제3차 전국 목사·장로 기도회 / 11월(월) 19:30부터 14월(목) 07:00까지 실시하여 전국 목사·장로 기도가 있는 관공로 수요부 예배만 갈림리를 예외로 하며, 새벽기도회 및 수요부 예배는 본당에서 계속 드립니다.

● 오 입

1. 장로 화요새벽기도회 / 12월(화) 새벽기도 후, 교육관 109호
2. 전도위원회 월례회 / 오는 15:30, 선교관 405호
3. 봉사위원회 월례회 / 오는 15:30, 사무국
4. 학원전도회 월례회 / 오는 12:30, 학원전도회실
5. 심원인전도회 월례회 / 오는 주일기도회 후, 사랑부실
6. 심원인전도회 월례회 / 오는 12:30, 교육관 201호
7. 심원인전도회 목요기도회 / 14월(목) 새벽기도 후, 심원인전도회실
8. 경찰전도회 월례회 / 15월(금) 18:00, 경찰관
9. 교육훈련원 월례회 / 15월(금) 18:00, 교육관
10. 교육연구회 월례회 / 15월(금) 11부예배 후, 교육관 207호
11. 총신신학교 월례회 / 오는 15:00, 선교관 404호
12. 안양신학교 화요새벽기도 성경공부 / 11월(월) 새벽기도회 후, 교육관 109호
13. 권사회 제2차 월례회 / 13월(수) 1부예배 후, 사랑부실

● 남산전도회

1. 바울 1 / 16월(토) 18:00, 다보정
2. 바울 2 / 16월(토) 18:30, 교도동문 앞(부부동반)
3. 바울 10월(토) 18:00, 간담회 성도대(국민대 뒤, 914-1055)
4. 바울 14 / 오는 금요일 2부, 교육관 201호
5. 바울 17월(토) 18:00, 본당강원 주차
6. 베드로 4 / 16월(토) 18:30, 신명동 집사대(532-3473)
7. 베드로 8월(토) 18:30, 성서학당(288-9999)
8. 베드로 9월(토) 18:30, 성서학당(973-5497)
9. 베드로 10월(토) 18:30, 강릉동 옥돌길
10. 베드로 13월(토) 18:30, 강릉동, 팔만골
11. 베드로 14월(토) 18:30, 강릉 집사대(806-6641)
12. 베드로 17월(토) 18:30, 본당강원 주차
13. 오 한 4월(토) 16:00, 사도 베드로의 공헌
14. 오 한 5월(토) 16:00, 수도권 가락동(가)
15. 오 한 6월(토) 15:30, 강릉 집사대
16. 오 한 17월(토) 18:00, 유서회 성도대(0342-717-1462)
17. 한 나 1 / 오는 금요일 2부, 교육관 307호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	연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	연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	연도자
827	권영진	1	청년2부	848	류희정	12	청년2부	권병철(17)	869	유성진	4	소년부		
828	조준환	1	청년1부	849	김경희	15	반송	조진희(2)	870	이민숙	4	반송		
829	최호준	1	베드로	850	하유자(13)	13	예당1부	하유자(13)	871	박정원	19	청년1부		
830	강재호	1	루디아	851	김수나	14	베드로	872	오태훈	19	대학부			
831	김정호	2	루디아	852	최진호	19	청년2부	김성아(1)	873	신은아	19	대학부		
832	장민호	2	청년2부	853	이승환	7	고동부	874	이민숙	2	바울			서병호(2)
833	조영준	2	청년2부	854	최진호	19	고동부	875	이민숙	4	베드로			
834	최민호	2	청년2부	855	이성희	19	대학부	876	이민숙	4	마르			
835	조남수	4	베드로	856	김지민	19	대학부	877	유혜숙	4	루디아			
836	김지현	5	에디스	857	백수현	19	대학부	한준희(19)	878	유혜숙	4	루디아		
837	박정호	6	베드로	858	박재영	19	대학부	879	이민숙	8	베드로			
838	이정호	6	루디아	859	황용석	19	대학부	880	박재영	11	청년2부			김미란(2)
839	김정호	6	소남부	860	이유진	19	대학부	881	최덕순	11	청년2부			장미영(10)
840	박연호	6	대학부	861	명성인	19	대학부	김효정(2)	882	이수현	19	청년1부		
841	박연호	6	고동부	862	김진숙	19	대학부	883	박재영	19	청년1부			
842	김경태	6	고동부	863	조민지	19	중남부	884	이민숙	19	청년1부			
843	윤재호	6	청년2부	864	최재호	19	청년1부	임동태(1)	885	오희숙	19	대학부		오정아(19)
844	노재호	10	하나	865	성준원	19	청년1부	성명원(19)	886	이희숙	19	청년1부		
845	류동성	12	바울	866	최희진	17	청년1부	정분순(2)	887	정미영	19	고동부		박소(6)
846	박연호	12	에디스	867	오수희	19	청년1부	조남원(19)						
847	이준희	12	관영희	868	노호수	19	청년2부							

※총신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금주의기도제목

1. 김장원 원로목사와 김성관 위임목사께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동과 육신의 강건함을 주시며 모든 교역자들과 당회원들이 신령한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2. 근검절약의 내면생활을 실천하며,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아 기도와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장학생들이 하나님과 사탄 앞에 인양반을 하나니 영생의 일군이 되게 하소서.
3. 우리 교회가 어린이들로부터 시작하여 전국 일대 양성에 한 정성을 기울일 수 있게 하옵소서.
4. 학식, 성실, 교육, 문답을 받은 이들이 기도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잘 되게 하소서.
5. 각 예배소에서 많은 모든 일꾼들이 사랑과 영광으로 찬양하여 성령찬양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소서.
6. 모든 성도들과 기원과 교회에 전도와 선교의 열기가 활활 타오르게 하셔서 많은 젊은이들이 전도와 선교의 대열에 열심히 참여하게 하소서.
7. 새벽기도회와 금요기도회와 주일 5부예배가 계속해서 힘있게 일어나게 하소서.
8. 민족과 나라와 교회를 위한 회개와 기도의 운동이 활발하게 하소서.
9. 총회의 모든 성도들이 주일을 성수하며 생명의 종으로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몸이 아픈 성도들을 믿음중에 강건케 하시기 치료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소서.

- 원로목사 김장원
- 위임목사 김성관
- 부목사 이홍성 김희수 이종대 박정원 김필수 정현민 조현찬 김태환 김민식 정재성
- 협동목사 윤영택 박용호 노봉린
- 선교사 이준교 안석원 김영태
- 감도사 이준경 박노철
- 원로전도사 이득만
- 여전도사 최순복 정영희 현정남 정복인 장영자 임태주 정지희 배옥인 최지혜 손희희 송창자 정복자 윤윤진 오정숙 오인숙 김옥을 한영준 박용화 박희자 임숙숙 김복순 최영란
- 고령전도사 박사리
- 교육전도사 박인기 열현일 한승일 이종관 김경기 송현석 김강중 조제민 최현우 허용구 이우찬
- 선교전도사 정성기 정은희 박태양
- 평신도 김형선 이기성 김철영 고은빈

물매들

주시경

한 수 경(집사, 15교구)



성격이 다르고 타고난 체질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생활 습관이 다른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언제나 작은 소용돌이에서부터 보이지 않는 질서와 반목이 있게 마련이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혹 자신은 솔직하기에 거짓없는 삶을 사노라며, 의지적 의의로 도덕적, 윤리적 면을 접어둔채, 자신의 강점에 솔직하다 보면 의외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게 되기도 한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내, 남편, 부모, 친지, 친구)에게 듣는 언어 폭력은 마음을 병들게 하며 서로의 관계에 신뢰를 깨뜨려 결집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한다.

결론 직후부터 8년여를 폐결핵이라는 병과 같이 산 적이 있다. 돌이켜 보면 내년에 극도의 소외감과 함께 기대감이 충족되지 못해 피해 의식이 커서 많은 상처를 받았다. 그 당시 주변 앞에서 많이도 울었는 듯이 가족, 친지, 세상 생명의 가해자이고 나쁜 피해자라는 의식에 사로잡혀서 힘겨워했다. 그때 주님이 안경 하나를 주셨다. 마태복음 7장 3절의 말씀이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만 깨닫지 못하느냐." 그것은 육신의 눈을 따윈 못 보이는 신성한 안경으로 비로소 가해자는 바로 내 속에 있는 또 하나의 나였던 것을 보게 한 주시경(主觀鏡)이었다.

5월 17일 예배 전 찬양곡 및 연주자

- ◆ 2부예배 소프라노 박경희, 4중창(미야노 / 김남욱) (찬양곡목)
- 복의 근원 감람사(한 28장) - 이 범을 더욱 크서라
- 내 목숨은 사랑의 향



- ◆ 3부예배 첼로 조준경(미야노 / 노동진) (찬양곡목)
- 예수 사랑하심(한 411장) - 구주와 함께(한 465장)
- 주님의 시간에 - 주 하나님 독재자 예수
- 내 주 죄인 주(한 512장)



- ◆ 4부예배 소프라노 이미리(미야노 / 김경아) (찬양곡목)
- 내 영혼의 노래(한 469장) - 이 세상 현교(한 197장)
- 내친자 죄인 주 - 오 신실하신 주(한 447장)



- ◆ 5부예배 소프라노 김은정(조규범 / 민희정) (찬양곡목)
-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대서(한 469장)
- 나의 간 곳 거가도(한 434장)
- 저 높은 곳을 향하여(한 543장)



직원모집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함께 일할 성실한 직원을 모집합니다.

1. 자격
 - (1) 세례를 받은 자로 40세 미만
 - (2) 정규대학을 졸업한 자
 - (3) 영어 해독이 가능한 자
 - (4) PC사용이 가능한 자
 - (5)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2. 근무지 : 비서직(남) 0명
3. 제출서류
 - (1) 자필이력서(사진 포함)
 - (2) 주민등록복본
 - (3) 타교인선 당회장 추천서
4. 제출처 : 총신교회 사무국

경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8200(교한 402)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본 양생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지역사회 봉사

주간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단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나라
(엢 1:21)

발행처: 대한예수교 총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김은호 편집국장: 조순권

스승의 주일

‘교사들의 순전한 헌신에 감사의 편지를’ 복음을 맡은 자로 참 목자상 회복하기



1964년 5월 청소년직실자단 대표들이 모여서 제정된 5월 15일 스승의 날을 기점으로 해서 한국 교회는 교회학교 교사들의 재헌신과 참 목자상 회복을 위한 ‘스승의 주일’을 기념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입시를 위주로 한 한국 사회의 편향적인 교육적 상황과 관련하여 교회학교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여겨져 왔으며, 이에 따라 교회학교 교사들에 대한 실제적인 배려도 이루어지지 어려워졌다. 그리고 대가없는 수고와 헌신으로 어린 영혼들을 키우 하나님께 영광을 베풀하는 교회학교 교사들에게 바른 위상을 찾아주고 복음을 맡은 그들로 하여금 참 목자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교사 재교육 과정도 매우 부족하다.

교회교육이 발달한 미국의 경우 연중 다양한 교회학교 교사대회 등을 통해 교회학교 교사들이 영적으로 재충전하고 교사의 위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일들을 지속해 왔으며 그들이 영적 고갈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배려한다. 그리고 어떤 교회들은 교사안식년 제도를 공식화하여 교사들이 새로운 경험들을 통해 풍부한 교사상을 소유하는 기

회를 부여하기도 한다.

우리 교회에서는 매년 초 교회일본 영성훈련을 통해 교사들의 재헌신을 다지는 기회들을 가지고 있고,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부수들마다 교사 재교육을 위한 특강과 기도회 등의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다. 특히 각 부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가르쳐 학생들을 복음 안에서 키우자’는 교회적인 기치에 모든 교사들이 신속히 공감하고 노력하고 있다. 다만, 교회학교 교사들은 이러한 교사 재교육 과정들이 전교적인 차원에서 좀 더 체계적으로 수립되어 운용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금번 스승의 주일을 맞아 충현의 성도들은 감사의 마음을 담은 사랑의 편지로 교사들을 격려하고, 자녀들의 영혼이 그들의 손길로 통해 아름답게 다듬어질 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일에 다시금 전력할 수 있어야 하겠다. 그리고 학교를 통한 지식 교육, 입시 교육의 중요성을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신앙 교육의 절대적 중요성을 알아 교회학교 교사들과의 깊은 공감과 연대를 통해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해야 하겠다.

1998년 제2차 학습세례식

오늘 저녁 찬양예배시

오늘 저녁 찬양예배시에는 1998년도 제2차 학습세례식이 거행된다(유아세례식은 오늘 3시 갈릴리움). 금번 학습세례식 대상자들은 학습자 53명, 세례자 65명, 입교자 17명, 개종자 5명, 그리고 유아세례자 88명 등 총 228명이다. 금번 세례, 학습 대상자는 계절적인 요인에 따라 지난 제1차 학습세례식(2월 15일)의 383명에 비해 150여명이 줄었다.

남성도 구역장 영성훈련

5월 20일 수요일2부예배 후

김성관 위임목사의 강의로

5월 20일 수요일2부예배 후 베다니홀에서는 남성도 구역장 영성훈련이 실시된다. 금번 훈련의 강의를 김성관 위임목사가 담당한다. 교구위원회는 그동안 매주 수요일2부예배 후 부교역자들의 강의와 남성도 구역장들의 성실한 참여를 통해 활력있게 진행되어온 남성도 구역장 훈련이 금번 영성훈련을 기점으로 다시 한번 힘을 얻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 한편 남성도 구역모임은 당초 우려했던 바와는 달리 구역장들의 헌신과 구역원들의 열심 가운데 원만히 진행되고 있다.

제6회 군전도회 수련회

11-12일 은혜중 마쳐

군전도회는 지난 11일과 12일에 걸쳐 강원도 22사단 동해교회에서 제6회 수련회를 실시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은 군사가 되자’(딤후 2:23)를 주제로 하여 124명의 회원들이 참여한 금번 수련회를 통해 군전도회는 예배와 기도회, 공비침투지역 견학 등이 적절히 조합된 가운데 큰 은혜의 시간을 나눌 수

있었다. 특히 수련회의 백미는 설악산 관광일정을 변경하여 실시한 기도회였다. 모든 회원들은 비가 내리는 중 설악산 입구에 모여 우산을 받쳐들었다. 그리고 특별한 교회와 교회일본들을 위해서 드물게 하나가 되어 기도를 드렸다.

전국 여름성경학교 지도자 강습회

18일(월)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단 총회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98년도 여름성경학교 지도자 강습회가 18일(월) 오후 1시부터 우리 교회에서 실시된다. 금번 강습회는 공과집필자들이 직접 강의하고 찬양운동 창작자들이 직접 운동을 지도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한편 총회 교육부가 선정한 금년도 여름성경학교 총주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요일 4:7-8)이다. 충현의 성도들은 금번 강습회를 통해서 교단소속 교회학교 지도자들이 흥미 위주의 프로그램 수련회를 지양하고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깨닫고 가르치는 수련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도로 지원해야 하겠다.

장학위원회 장학생 후보자 등산

5월 23일 청계산

장학위원회는 23일(토) 오후에 소석 전역장학생 후보자 20여명과 함께 청계산을 등반할 예정이다. 장학선 선별 과정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등산상을 통해 장학위원들은 후보자 개개인과 좀 더 친밀한 대화를 나누고 이들이 최종 결과를 떠나서 진정한 천국일본으로 준비되어가는 일에 도움이 되도록 여러 가능성들을 함께 발견해갈 예정이다.

제35회 전국 목사·장로 기도회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자’(렘 5:1) 지난 11일 저녁부터 14일 새벽까지 진행된 제35회 전국 목사·장로 기도회의 주제는 2월 3일 영명이 참석한 이번 기도회에서는 예년보다 더욱 뜨거운 참회와 결단의 기도들이 드러났다. 그리고 참석자 대다수가 소소한 모임을 지양하고 전체로 모여 그리스도 안에서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특히, 수요일저녁예배를 통해서 김장원 원로목사는 위기와 고난을 넘어서는 모든 소망은 오직 예수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힘주어 강조함으로써 참신한 목사, 장로들 및 성도들의 마음에 새로운 결단을 일으켰다.



애급의 쇠퇴와 회복 (1)

(이사야 19:1-10)

“심판주 하나님은 빠른 구름을 타고 임하시기 때문에 죄를 범한 자는 도망가거나 피할 장소가 없다는 진리를 배워야 합니다. 평안하고 배부를 때에 확복하지 못하고 형제끼리 싸우면 싸우지 못할 만큼 부자유스러운 때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면 사람만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천지만물이 모두 저주를 받게 됩니다.”

김창인 목사

이 사야 19장은 애굽에 대한 경고로서 전만부에서는 심판(1-15절)을 말하여 위함을 주셨고 후만부에서는 언약(18-25절)을 말하여 소망을 주셨습니 다. 이 둘을 다리 놓아주는 내용인 심판과 구원(16-17절)이 중간에 있습니다.

1. 애급의 쇠퇴가 어떠합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할 당시의 애굽은 세상에서 가장 문명하고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애급의 땅은 비옥하여 농산물이 풍성했고, 애급의 근대는 마법과 병기로 무장하여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갖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나라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면 서(사 30:2) 그러로 도망하였습니 다(렐 43:7). 랍사제는 이런 사실을 들어 히스기야를 책망하였습니 다(사 36:6). 이렇게 유다는 언제나 곤경에 처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믿으려고 하였습니 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애굽이 쇠퇴하여 유다가 의지하지 못하도록 애굽에 심판을 내리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1) 애굽에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할까

“...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라.” (1절)
애굽을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뿐이신데, 애굽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빠른 구름을 타고 임하시리라.

“빠른 구름을 타고”는 첫째로, 막을 자가 없다는 뜻입니다. 공중의 구름이 무엇이 막는다고 오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반대하거나 막을 자가 없습니 다. 둘째로, 위해서부터 심판을 내리셨으니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피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셋째로, 인간이 감히 피하려고 해도 못할 정도로 형벌이 빨리 임하겠다는 말씀입니다.

(2) 애굽에서 심판받은 대상이 누구입니까

“... 애급의 우상들이 그 안에서 멸했고 애급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 로다” (11절)

애급의 우상들이 심판을 받았습니 다. 애굽은 우상을 많이 섬기는 다신교 국가입니다. 애급 수도에 가면 사람 하나를 만나기보다 귀신당 하나를 보기가

더 쉬울 만큼 귀신당이 많습니 다. 그런데 애굽이 섬기는 귀신들이 정말 귀신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악마가 그것들 속에서 미혹하는 역사를 하여 사람의 영육을 망하게 합니다.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어리석게 따라 갑니 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상을 심판해 버리시리 다.

② 애급의 위정자들이 심판을 받습니 다.
“... 그 도모는 그의 과신보다 되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성한 자와 요술에게 물으리 로다” (3절)

첫째, 교만 때문에 심판을 당합니다. “우리는 지식이 많고 돈이 많고 권세가 굉장하 다”는 교만 때문에 심판을 받았습니 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심판하십니다. 둘째, 욕심 때문에 심판을 당합니다. 지도자들의 욕심은 너무 두터웠습니 다. 가난한 사람들이 배가 고프고 먹으려고 하는 것도 욕심이 지만 그것은 작은 욕심이고, 돈이 많은 사람들이 쌓아 두려는 욕심은 감당하지 못할 욕심입니다. 흔히 욕심이 많은 사람을 가리켜 ‘돼지 같은 욕심장이’라고 합니다. 돼지는 배만 부르면 자기 앞에 놓인 먹이도 본능만 채웁습니 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백만원만 있으면 족했던 사람도 백만원을 가지게 되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가지려고 자기보다 약하고 가난한 사람의 것을 빼앗아 자기의 욕심을 채웁니 다. 이러한 인간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어 결국 멸망을 가져오게 됩니 다(야 1:15). 셋째, 잔인 때문에 심판을 당합니다. 애급의 바로 왕은 ‘이스라엘 민족이 많으면 반드시 기워도 쏘냐나 이들을 빨리 죽여라’는 명령을 내렸습니 다. 얼마나 잔인한 명령입니까? 남의 사정을 몰라 주고 뱉어버리는 잔인은 하나님께 심판하십니다. 넷째, 경솔 때문에 심판을 당합니다. 경솔은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지 않고 기분에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미신 때문에 심판을 당합니다.

(3) 애급이 심판을 받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

① 내란이 일어나고 외국 세력에 간섭을 당하게 됩니다.

첫째, 정적적으로 내란이 일어납니 다. “... 그들이 자기 형제를 치며 자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요” (2절)

하나님의 심판의 몸통이가 떨어지니 불화가 생겨서 내란이 일어납니 다. 내란이 일어난다는 것은 멸망을 받게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둘째, 정신적으로 쇠약해집니다.
“... 애급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3절)

마음과 정신이 쇠약해지니 그들에게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성이나 분별력이 전혀 남지 않게 되었습니 다. 율령하기로 이름난 애급 군인들은 완전히 기가 죽고 낙담하게 되며 애급의 영웅들도 겁장이가 됩니다. 그래서 나라와 자유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일어설 마음을 갖지 못하고 볼 앞에 초장이 녹아 내립니 다. 아주 작은 일에도 놀라 혼비백산하게 됩니다.

나라가 소란해지면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해야 하는데, 귀신을 더 의지하다 가 결국 망하게 됩니다.

셋째, 포악한 군주에게 착취와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가 애급인을 잔인한 군주의 손에 붙이시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치리 하리 라” (4절)

하나님께서 편안하게 마음놓고 살 수 있는 때에 형제끼리 싸움을 일삼는 것을 강한 나라가 보고는 “저희끼리 싸우는구나. 가서 몽땅 먹어 치우자”는 생각을 갖게 하여 애굽을 지배하게 하십니다.

② 애급의 산업이 저주를 당합니다.

첫째, 바다와 강과 시내가 말라 흉년이 들리 다(5, 6절).

애급은 나일강이 크게 영향을 끼칩니 다. 나일강은 1,600리 이상으로 길게 흘러내리는 바다 같은 강입니다. 이 강은 아비달스리산맥에서부터 흘러 내려 옵니 다. 이 산맥에 쌓인 눈이 녹아서 되면 녹아서 흘러 내려 오는데 수천 년 동안 쌓은 거름을 싣고 내려 오면서 애급 천지의 들녘에 골고루 흘러서 들판입니다. 이렇게 되면 농부들은 흐르는 물이 없는 것만으로도 강에 배를 타고 다니다가 그 물 위에 씨를 뿌립니 다. 얼마 후에 물이 다 갓아지고 거기에서 씨가 나오고 열매를 맺고 추수할 때가 되는 물이 없어집니다. 나일강이 이렇게 넘치는 해에는 풍년이 들고 그렇지 못하면 흉년이 들리 다.

이런 애굽에 하나님께서 물을 말리시려고 아비달스리산맥에 불이 오지 않게 하시니 여름이 되어도 물이 흘러 내리 지 않습니 다. 그렇게 되면 씨를 뿌리지

못하여 흉년이 들게 됩니다.

둘째로, 목축업과 농업이 망하리 다(7절). 초장에 풀이 없으니가 소와 양을 먹일 수가 없습니 다. 밀과 보리가 되지 않으니가 농업이 망하리 다.

셋째로, 어업과 방직업이 망하리 다(8, 9절). 나일강에 물이 마르게 되니가 물고기를 잡을 수 없습니 다. 애굽은 미이락을 새매단 새마포 제조로 유명하였습니 다. 그런데 비단과 맥복과 새마포를 팔 수 없다고 하였습니 다.

넷째로, 전반적인 휴업이 일어납니 다(10절).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다 할 일이 없어 지게 됩니다. 따라서 앓을 받지 못하 로 마음에 근심이 가득할 것입니 다.

(4) 본문에서 배울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째, 심판주 하나님은 빠른 구름을 타고 임하시기 때문에 죄를 범한 자는 도망가거나 피할 장소가 없다는 진리를 배워야 합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모아서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집에서 잘 살 것 같아도, 사람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습니 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심판의 때가 되어 “이제는 할 수 없다” 하시면서 마침내 천도하시면 빠른 구름을 타고 임하시 로 인간이 아무리 빨리 도망을 가도 소용이 없고 또한 인간이 어디로든 도망 갈 수가 없습니 다.

둘째, 평안하고 배부를 때에 확복하지 못하고 형제끼리 싸우면 싸우지 못할 만큼 부자유스러운 때가 올 것입니 다.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고 평안한 때에 싸우지 말고 서로 위하여 기도하고 선한 일에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면 사람만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천지만물이 모두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책임이 많습니 다. 부모된 자는 내가 잘못하든 나만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손까지 고생하는 것을 생각하고 경성해야 합니다. 목사님, 장로님들은 나 하나가 잘못하면 나만 죽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속이 되든 모든 교인이 멸망하는 무서운 손해를 끼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 때문에 풀 한 포기까지 손해를 당하면 안 된다 는 것을 알고 법사에 근신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

무화과 두 광주리

(예레미야 24:1-10)

“표면적으로는 좋은 무화과들이 악한 무화과보다 더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선한 사람들이 더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난은 일시적이지만 궁극적으로 그것이 영원한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김성권 목사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 여호아킴의 아들 예고냐와 유다 방백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에서 여호와의 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로 내게 보냈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악하여 먹을 수 없는 극히 악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악한 것은 극히 악하여 먹을 수 없게 하신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들이 좋은 무화과같이 보아 좋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고 세우고 할지 아니하며 심고 뺨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방백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 있는 자와 애굽 땅에 거하는 자들을 이 악하여 먹을 수 없는 악한 무화과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중에 흩어져서 그들이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로 내 찾아보인 모든 곳에서 치욕을 당하게 하며 팔거라 되게 하며 조공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역병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로 내가 그들과 그 열조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렘 24:1-10).

바벨론으로 잡혀간 여고냐와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시드기야는 유다의 두 령한 두 부류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두 부류는 모두 지극히 선한지나 지극히 악한지 하여 극과 극으로 대조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두 종류의 무화과 중 하나는 극히 좋으나, 다른 하나는 극히 악하게 자라났습니다. 맛도 그다지 좋을 것입니다. 무화과 열매의 좋고 나쁨은 그 맛이 결정합니다. 그리고 열매가

자라남에 따라 그 열매가 달랐던 나무의 기둥과 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좋은 뿌리는 좋은 열매를 맺으며 나쁜 뿌리는 좋지 못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선한 사람은 더욱 선해지려고 하며 악한 사람은 더욱 악해지려 마련입니다.

본문의 시대 배경을 잘 살펴보면, 좋은 무화과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침략때 가장 고통 받았던 유대인을 상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재산은 약탈당했으며 가족들은 팔려서 흩어져 포로로 잡혀가야 했습니다.

최악에 달한 그들의 당시 상황을 보면, 본문에서의 악한 무화과가 그들을 상징한다고 생각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좋은 무화과에 비유되고 있는 반면, 악한 무화과는 그들 중 운이 좋은 유대인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바벨론의 침략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건재했던 유대인들이 악한 무화과로 상징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느부갓네살로부터 자유로워졌으며 후에는 애굽에 정착하게 됩니다. 왕이 되는 기회를 얻은 시드기야는 자신이 다른 유대인들보다 매우 운이 좋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좋은 무화과들이 악한 무화과보다 더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선한 사람들이 더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합니까?

이 질문의 가장 좋은 대답은 슬픔과 고통을 잘 견디면 내 믿음의 사람, 읍의 이야기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자녀들과 종들 및 자신의 모든 소유물을 잃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참을 수 없는 육체적인 고통도 겪어야 했습니다. 읍의 세 친구들은 그의 모든 고난이 너무 인한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들은 돌이키기 어려운 실수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들이 볼 때, 읍의 고난은 죄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그의 세 친구들은 죄없는 읍에게 회개할 것을 요구하며 괴롭혔습니다. 장모로 크나 큰 실수였습니다. 죄 없는 읍을 정죄한 친구들이 저지른 실수는 남을 정죄하기 좋아하는 우리들

의 모습을 반영합니다. 그러한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엄한 경고의 말씀으로 꾸짖으십니다. 다만, 읍과 세 친구들의 대화를 듣고 있던 엘리후는 조금 다른 관점을 가지고서 고난이 공의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때로 고난이 공의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읍이 그토록 큰 시련을 겪어야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재난과 불행이 죄의 결과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심으로 그들을 높이시고 축복하시려고 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이것을 이해하고 고난이 와도 겁내지 않으며 하나님의 깊은 심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환난을 올바르게 참고 견디면 내 자신을 사랑으로 지켜보십니다. 본문의 좋은 무화과는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갈대아인들의 침략을 견디며 유대인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악한 무화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불순종한 또다른 부류의 유대인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무슨 까닭인지 아십니까? 세상을 따라 살기는 쉬우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는 쉽지 않은 까닭입니다.

악한 무화과와 같은 유대인들은 너무나 세상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세속적인 사회와 문화에 속해 있었으며 자기 중심적이었습니다. 그들 앞에 놓여진 두 갈래의 길 중 선한 길은 감옥에 갇히는 고난의 길이었었고, 악한 길은 편리를 가져다 주는 자유의 길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선한 길은 나쁘고 악한 길은 좋게만 여겼습니다. 악한 길의 좋아 보인다고 더 쉽고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더 멀리 바라볼 수 없었으므로 악한 길의 자신들에게 심판의 길인 것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선한 길은 고난의 길이라는 사실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극심한 고난은 가장 행복한 결말을 이끌 수도 있습니다. 예레미야

의 환상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을 다시 회복하실 것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포로가 된 유대인들은 고난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방인들과 이방 왕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짧지만 혹독했던 그들의 고난은 최선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피해 일시적인 자유를 누렸던 자들은 결국 멸망의 길을 자초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난은 일시적이지만 궁극적으로 그것이 영원한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이라”(고후 4:17-18).

이 놀라운 말씀은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난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최후의 고난이었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겪는 고난은 극히 일시적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가장 좋은 길은 십자가입니다!

요즘 나라가 많이 어렵습니다. IMF가 이 어려운 경제 위기 속에서 우리를 구제해 줄 수는 없습니다.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정치, 사회, 종교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많은 나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광주리에 담긴 좋은 무화과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여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친히 보여주시고 우리는 순종하며 따라야 하였습니다. 아멘. 

선교 정보 나누기 - 스리랑카

눈물 방울 모양의 섬나라 스리랑카

1. 국명·위치

스리랑카는 적도에서 북쪽으로 5도, 인도대륙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섬나라이다. 스리랑카의 총면적은 6만6천평방킬로미터로써 중앙지역은 산악지역이고, 해안지역으로 갈수록 평평해지는 전형적인 섬나라이다.

스리랑카라고 하는 이름에서 스리(Sri)는 '아름다운, 풍성한, 영광스러운'이라는 뜻을, 랑카(Lanka)는 '땅, 표적, 나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름 그대로 풍요하고 아름다운 나라이다.

2. 인구

총인구는 1,800만 명에 달한다. 그 중 73%가량이 싱할라인들과고, 타밀인들이 약 19%로 스리랑카 타밀 13%, 인도 타밀 6%, 무어인이라 불리는 아랍계 혼혈 타밀인이 7%, 버지인, 즉 포르투갈계 혼혈인이 1% 정도이다.

싱할라족은 복인도의 아리안 계통으로 BC 6세기경 스리랑카에 건너와 힌두교인 베다족(아직 소수의 사람들이 남아 있음)을 정복하고 정착한 사람들이고, 타밀인은 AD 9세기(영국식민통치시 흥자 재배를 위해 강제 이주) 두 차례에 걸쳐 스리랑카에 정착하게 된 사람들이다.

3. 기후와 온도

일년 내내 고온 다습한 기후로써 연평균 섭씨 29도, 습도 75%이고 연중 2회에 걸친 몬순 기후로 인해 남서해안은 5월부터 9월까지 우기이며 동북쪽은 반대로 건기가 된다. 1월부터 2월까지 남서해안은 쾌청한 날씨로써 지상낙원이라 불리는 스리랑카의 각 해변과 호



텔에는 유럽의 관광객들이 발디딜 틈 없이 모여든다. 이때 동북쪽은 강풍을 동반한 우기가 된다.

고, 영어는 고학력을 가진 층에서 사용한다.

4. 경제

전체 국민의 50%가 농업에 종사하면서 일년 내내 쌀 농사를 비롯한 고무와 코코넛, 홍차 등의 농사를 짓고 있지만 농업이 발달되어 있지 못하여 주식인 쌀을 수입하여 먹는 실정이다. 다이아몬드를 제외한 모든 보석들이 생산되어 보석 생산국으로 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지만 많은 외화를 벌어들일 만큼 풍족한 양은 못된다. 현재 일인당 GNP는 600달러 정도이다.

5. 언어

사용하는 언어는 싱할라어와 타밀어, 영어 등인데 싱할라어는 주로 스리랑카 남부와 중앙지역에서 통용되고 타밀어는 북부와 동부지역에서 사용되

6. 한국과의 관계

1977년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양국간 우호 관계를 증진시키면서 1984년, 1988년, 그리고 1996년 스리랑카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한 이후로 정치 및 경제 교류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7. 종교 분포도

불교인이 약 69%, 힌두교인이 16%, 회교도가 7%, 카톨릭이 7%, 개신교인이 0.8% 정도이다.

8. 기독교 전래사

스리랑카에 기독교가 들어온 것은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주후 70년경 인도 남부 마두라스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며 이곳에도 왔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기

는 하지만 확실치는 않다.

1505년 포르투갈이 식민지 정책을 자연스럽게 이용하여 빈센트 선교사가 카톨릭을 전해 주었다. 주로 서쪽 해안을 따라 어부들을 중심으로 하여 뿌리를 내렸다.

그리고 1638년 네덜란드의 식민지가 되면서 네덜란드 개척교회(장로교)가 1812년에 상륙했다. 그리고 영국 식민지 하에서 성공회가, 또한 미국에서 오랜 선교사역을 하고 은퇴 후 돌아온 토마스 코크 박사가 아시아 선교자 모임에 지원하여 1814년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리의 파송을 받고 오던 중 노획과 여독으로 선교지에 도착하기 전 선상에서 순교하고 수행원이던 5명이 남쪽 항구에 도착하여 전국에 많은 학교와 교회들을 세웠다. 아시아 최초의 감리교회(1814년 설립, 페타감리교회)가 스리랑카의 콜롬보에 세워진 것이었다.

“전하 문도 없었어요”

“신청서 접수 받은 거 있어요?”
“아니요. 전하 문도 없었어요.”
“미국인 26가정이 7월에 우리 교회를 방문할텐데...”

해의 입양인들을 초청할 자정을 모으는 광고를 두 주에 걸쳐 주간총회에 실었지만 전하 문도조차도 없습니다. 7월이면 입양인들이 우리 교회를 방문할텐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방바실에서 주무시라고 할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은 총현 성도들의 따뜻한 마음을 기다립니다.

문의, 접수 : 선교위원회 (교) 356

사도 바울의 초기 사역에 나타나는 자비량 선교

자비량 선교는 영어로 tentmaking mission(장막 만드는 선교)으로 표기된다. 초대 교회의 최초 선교사였던 사도 바울이 장막(tent)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사용했던(행18:2-3). 즉 스스로 재정 문제를 해결하면서 선교하는 경우를 자비량 선교라고 부른다.

혹자는 선교사의 최고 모델이라고 할 바울을 본받아 현대의 모든 선교사들도 자비량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독일의 모라비아교 선교 운동이나 근대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의 선교 활동은 확실히 자비량화한 선교이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9장 6절에서 14절의 말씀은 근거로 초기 사도 바울의 자비량 선교의 배경과 상황을 다른 각도로 바라볼 수 있다. 바울은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 가운데 선교의 수행과 후원이 간과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다.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한 안디옥 교회는 여타의 개척 교회들은 제제적이고 조직적으로 바울을 지원할 만한 역량을 갖추지 못했다. 물론 재정면으로도 바울을 지속적으로 후원할 만큼 성장하지도 못했다. 바울이 개척한 초기 교회들은 문자 그대로 가정 교회였기 때문이다. 즉 바울이 교회의 전폭적인 재정 지원을 요청하지 않은 것은 신학적인 이유라기보다는 상황적인 이유 때문이었다.

바울은 선교의 개척자로서 스스로 일하며 남을 돕는 모범을 보이고자 했음을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을 통해 알 수 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는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또한 바울은 후에 자신의 선교 사역은 물론 다른 복음 전파자의 필요를 채우는 일에 교회들이 적극 참여할 것을 권유하기도 했다(빌 4:15-16, 딤후 3:12-14).

이와 같이 자비량 선교는 선교의 개척 상황 또는 제한된 활동만을 할 수 있는 선교 상황에서 이용될 수 있는 전략의 하나인 것이다. 특히 선교제한 지역(항의적 접근지역)과 같이 기독교 선교를 적극적으로 불허하는 국가들에서는 자비량 선교사(혹 전문인 선교사)들이 위력을 발휘한다. 현대의 선교는 교회의 인정과 후원을 받으면서 동시에 교회의 적절한 감독을 받아야 한다

는 원칙 아래서 이뤄지게 된다.



선교를 위한 요일별 기도제목

6월 중순 ~ 8월초에 총현의 젊은 이들이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기도로 동참하여 주십시오.

월) 오직 복음만 전하는 단기선교가 되어서요.

화) 준비하는 과정부터 마칠 때까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도록.

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음에 열린 자들을 만나도록.

목) 7개월(수단, 인도, 몽골, 중국1, 중국2, 방글라데시, 스리랑카)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도록.

금) 단기선교를 통하여 선교의 구체적 인정이 설정되도록.

토) 젊은 선교 헌신자들을 발굴, 육성하도록.